
출장결과보고

개발금융 확대와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솔루션 관련 IDB
Invest 출장

출장복명일 2026.08.06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및 배경

1) 목적

- 지정학적 분절화와 글로벌 금융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 확대와 글로벌 금융안정(global financial st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금융솔루션을 모색하고자, 해당 분야 전문기관인 IDB Invest를 면담
 - 비은행 금융중개(NBFI)를 통한 개발재원 확대가 자본흐름의 변동성·전이 위험을 함께 키우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하면서도 민간자본을 동원하는 금융구조를 파악함.
 - G20 자본적정성 프레임워크 독립검토(CAF Review) 권고가 실제 상품·구조로 구현되는 방식을 확인
 - 개발금융과 금융안정의 균형 관점에서 IDB Invest의 조성-분산(originate-to-share) 사업모델과 위험관리·동원·혼합금융 실무를 비교·검토함.
- 면담에서는 (1) 시장기반 금융 확대가 EMDE(신흥·개도국) 자본흐름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 방안, (2) MDB의 균형시트 최적화·민간 위험이전(risk transfer)을 통한 자본동원 방식, (3) 신디케이션·B-loan·유동화(securitization)·합성위험이전(SRT) 등 민간자본 동원 수단, (4) 국가위험·신용위험 심사 및 선호채권자 지위(PCS)·GEMs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경감 구조 등을 논의할 예정임.
- Financial Solutions, Mobilization & Asset Sharing(FSM)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조성-분산 모델에 기반한 금융구조화 및 민간자본 동원 전략을 파악할 예정임.
 - 개발자산을 조성한 뒤 민간에 분산하여 자기자본을 순환시키는 구조가, 재무혁신·균형시트 최적화 등 G20 MDB 개혁 권고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논의함.
- Mobilization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비은행·기관투자자 자본의 동원 구조와, 시장기반 동원이 자본흐름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의 관리 방안을 파악할 예정임.
 - B-loan·신디케이션·증권화를 통해 MDB 자산을 새로운 자산군(asset class)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국내 상업은행·연기금 등 한국 기관의 참여 확대 가능성을 논의함.
- Capital Markets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현지통화 채권시장 심화, 테마본드·유동화·신용보장을 통한 자본시장 기반 자본동원 및 시장안정화 방안을 파악할 예정임.
 - EMDE 회복력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현지통화 채권시장 육성·장기 헤지·채권시장 인프라(plumbing) 개선의 실제 구현 사례를 확인함.
- Blended Finance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양허성 재원을 활용한 위험경감 및 민간자본 유도 방안을 파악할 예정임.
 - ‘MDB 보증을 통한 가격 프리미엄 상쇄’ 및 상태연계형·기후회복형 상품 설계 원리와, 양허성 재원의 최소·효율적 사용(concessionality) 기준을 논의함.
- Trade & Supply Finance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무역·결제 시스템 분절화(cost channel)에 대응하는 무역금융촉진프로그램(TFFP)과, 현지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위험분담 구조를 파악할 예정임.
 - Basel III 강화에 따른 국제은행의 개도국 철수(derisking) 국면에서 무역흐름과 거래(correspondent)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논의함.
- Risk Management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개발자산의 위험 산정·관리체계와, 리스크 감내(risk appetite) 확대와 건전성(prudential) 유지의 균형 방안을 파악할 예정임.

- 안전자산·위험가격결정(convenience yield) 관점에서, 고위험 개발자산을 기관투자자 투자가 능 수준으로 전환하는 위험관리 방식을 확인함.
- 면담 결과는 G20 재무트랙·MDB 개혁 대응 방향 모색, 한국 기관투자자의 국제개발금융 참여 확대 및 IDB Invest와의 후속 협력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임.

2) 배경

- 최근 지정학적 분절화와 글로벌 금융의 구조적 변화가 상호 강화되며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있음.
- 특히 ①은행→비은행 금융중개(NBFI) 이동, ②금융의 급속한 디지털화, ③국가부채의 지속적 급증이 EMDE로의 자본흐름을 더 빠르고 경기순응적이며 대외충격에 민감하게 만들고 있음.
- 이러한 구조변화는 지정학적 갈등이 '비용 채널(cost channel)'과 '신뢰 채널(trust channel)'을 통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통로로 작용하여, 개발재원 조달과 금융안정이 상충할 수 있는 국면을 형성함.
-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 차원의 회복력 강화와 함께 MDB 보증을 통한 위험경감·상태연계형 채무 설계·G20 공동프레임워크(Common Framework) 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국가 차원의 회복력 강화에는 현지통화 채권시장 육성, 장기 헤지·채권시장 인프라 개선 등이 있음.
- 미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 약화와 개도국 채권자 구조 변화로 글로벌 안전자산 공급이 축소되는 가운데, MDB의 위험경감·자본동원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G20은 2017년 민간자본 동원(crowding-in) 원칙 승인 이후, MDB 자본적정성 프레임워크 독립 검토(CAF Review) 등을 통해 MDB가 균형시트를 최적화하고 민간·기관투자자 자본을 대규모로 동원하도록 요구해 왔음.
- 그러나 시장기반 금융을 통한 개발재원 확대는 자본흐름의 변동성·전이 위험을 함께 키울 수 있어, '개발금융 추진'과 '글로벌 금융안정 유지'를 균형 있게 설계하는 금융솔루션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G20 재무트랙·MDB 협력 논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상품·구조를 실제 설계·운용하는 선도 기관과의 면담을 통한 현장 지식 확보가 필요함.
- IDB Invest는 미주개발은행그룹(IDB Group)의 민간부문 투자기구로, 2024년 35억 달러 규모 증자와 함께 조성·분산(originate-to-share) 사업모델로 전환하여 개발자산을 조성한 뒤 민간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있음.
- 동 모델은 재무혁신·균형시트 최적화(민간 위험이전)·GEMs 데이터 활용 등 G20이 승인한 MDB 개혁 권고를 직접 이행하는 사례로 평가되며(2024년 LAC 최초 10억 달러 유동화, 2025년 리튬 성사) G20 의제와의 연관성이 높음.
- 관련 부서가 대부분 국제개발금융과 글로벌 금융안정의 균형을 다루는 만큼, 개발금융 확대와 금융안정 유지를 병립시키는 금융솔루션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기관임.
- 이에 따라 IDB Invest를 방문하여 개발금융과 글로벌 금융안정을 균형 있게 달성하는 금융구조화 및 민간자본 동원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출장 일정

- 일자: 2026년 7월 19일(일)~7월 23일(목), 3박 5일
- 세부 일정(안)

일자	시간	주요 활동 내용	비고
7/19 (일)	10:25~ 현지 11:15	[출국] 인천공항 → 워싱턴 델레스 공항 (KE093)	13시간 50분 소요
	12:30~14:00	현지공항 도착 후 호텔 이동 (호텔-예약 예정)	
7/20 (월)	9:30~10:15	IDB Invest (Financial Institutions) 회의 참석	
	11:00~11:45	IDB Invest (Mobilization & Asset Sharing Division) 회의 참석	
	12:00~13:30	점심	
	14:00~14:45	IDB Invest (Capital Markets Division) 회의 참석	
7/21 (화)	9:30~10:15	IDB Invest (Risk Management Department) 회의 참석	
	11:30~13:30	점심	
	14:00~14:45	IDB Invest (Trade & Supply Finance Division) 회의 참석	
	15:00~15:45	IDB Invest (Blended Finance Division) 회의 참석	
7/22 (수)	현지 13:30~	[귀국] 워싱턴 델레스 공항 → 인천공항 (KE094)	15시간 10분 소요
7/23 (목)	~17:40		

3 주요 회의 내용

1. Financial Institutions Division 면담

☐ 일 시: 2026.7.20. (월), 09:30 ~ 10:15

☐ 장 소: IDB Invest

☐ 면담자: Lucas de Beaufort

☐ 주요 내용

○ IDB Invest는 IDB 그룹의 민간부문 투자기구로서 대출을 중심으로 하되 지분투자도 병행하고 있으며, 인프라·에너지, 금융기관, 기업(제조·관광·디지털경제 등) 세 개 섹터로 조직이 구분되어 있음.

○ IDB Invest가 민간자본 동원 시 상대하는 파트너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첫째 유형은 파트너 DFI 및 개발은행으로, 미션과 문서구조가 유사하여 협의 비용이 가장 낮고 가장 자연스러운 파트너에 해당함.

- 둘째 유형은 역내·역외 연기금으로, 개별 기관의 리스크 요건과 투자 요건이 경직적이어서 협의가 까다로우나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가 커 전략적 중요도가 높음.

- 셋째 유형은 대학기금 및 재단(endowment)으로, 중남미 역내에는 매우 드물고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나 IDB Invest 입장에서는 관심도가 높은 영역임.
- 넷째 유형은 고액자산가 및 패밀리오피스 등 순수 민간자금으로, 최근 미국계 패밀리오피스가 기후 특화 펀드에 참여한 사례가 있음.
- 한국 기관의 참여 현황과 관련하여 한국 상업은행이 B론 참여를 위해 접촉한 사례가 많지 않으며 일본(JICA)는 중남미 전담 부서를 별도로 두고 IDB Invest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음.
- 참여에 제한적인 한국 은행들의 애로 사항으로 순수 재무적 관점만으로는 파트너 설득이 어려울 수 있고, 전략적 동기가 결합될 경우 논의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
- 한국 측이 전달한 애로 사항으로 ①신흥국 리스크가 과다하다는 인식, ②현지 차주에 대한 신용도 평가가 곤란하다는 점, ③달러 조달비용 대비 수익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세 가지를 꼽음.
- 이러한 우려는 개발금융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것이지만, 미션 지향성이나 지역 확장이라는 부차적 전략 동기를 보유한 기관의 경우 협의가 훨씬 진전
- 구체적 사례로, 중동의 한 개발기관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중남미 소국 투자를 결정하자 IDB Invest가 자연스러운 파트너로 선택된 경우가 있었음.
- 금융기관(FI) 섹터는 신규 시장 진입의 가장 자연스러운 관문에 해당함.
- 금융기관에 대한 익스포저를 통해 규모가 작거나 지리적으로 멀거나 신용도 평가가 곤란하여 직접 접근이 불가능한 다수의 소액 거래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IDB Invest가 금융부문 업무를 지속적으로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함.
- 연기금 자금 동원 과정에서는 티켓사이즈의 구조적 불일치가 발생하며, ILX Fund가 이를 해소한 대표적 사례
- 캐나다 연기금 등 대형 연기금은 최소 수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면서도 단일 거래를 100% 인수하는 것은 기피하므로, 개별 거래 단위에서는 산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
- ILX Fund는 네덜란드 연기금 자금을 정부의 first-loss 및 보증, 그랜트를 결합한 전용 비히클로서 EBRD, IDB Invest 등 MDB 대출에 투자하는 구조이며, 위 문제에 대한 실효적 해법으로 기능하고 있음.
- Preferred Creditor Status는 B론 참여자에게도 확장 적용되며, 이는 AB구조의 핵심적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동 지위가 실제 위험가중치 경감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는 참여기관의 리스크관리 체계와 소재 관할권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2. Mobilization & Asset Sharing Division 면담

□ 일 시: 2026.7.20. (월), 11:00 ~ 11:45

□ 장 소: IDB Invest

□ 면담자: Rosario Eugenia Montecinos Zuniga, Laura Consta Duarte Espinoze,
Carmen Dolores De Pool Urena 외 1인

□ 주요 내용

- 민간자본 동원 실적은 직접동원과 간접동원으로 구분 관리되며, 양자 간 계상 방식과 대외 공표 여부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함.
 - 직접동원(direct mobilization)은 IDB Invest umbrella 하에서 대출계약에 편입되는 B론 등을 의미하며, 기관의 공식 목표치에 반영되는 핵심 지표에 해당함.
 - 간접동원(indirect mobilization)은 동일 거래에 참여하더라도 IDB Invest 대출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ECA 또는 DFI 트랜치를 의미하며, 목표치에는 반영되지 않고 연차보고서 및 OECD·MDB 공동보고서의 별도 섹션에만 기재됨.
 -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IDB Invest가 해당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실질적 노력을 투입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지 여부이며, ECA 트랜치는 기관 간 소통과 노력의 투입이 적어 직접동원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기관의 방침임.
 - DFI 등 공공기관의 참여는 내부적으로는 동원으로 인정되나 민간직접동원(PDM)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외 공표 수치에는 반영되지 않음.
- 한국 ECA가 한국 상업은행의 B론에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B론 전액이 민간직접동원으로 계상되며, 보증의 존재는 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총 1억 달러 대출을 A론 5천만 달러(IDB Invest)와 B론 5천만 달러(한국 상업은행)로 구성하고 한국 ECA가 해당 B론에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를 상정할 경우, B론 5천만 달러 전액이 PDM으로 계상됨.
 - 실무상 중대한 제약은 보증료가 스프레드를 잠식하여 참여 유인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임.
 - SOFR+300 수준의 거래라도 보증료 차감 후 실질 수익이 SOFR+100 수준으로 축소되면 은행이 참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됨.
 - 특히 한국 은행이 선호하는 투자등급 거래는 애초에 스프레드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 보증 부가 시 경제성이 성립하기 어려운바, 투자등급 선호와 ECA 보증 부가는 상충 관계에 놓임.
- B론 참여에 따른 위험가중치 경감 여부는 관할권별로 상이하며, 이에 대한 문서화된 근거는 IDB Invest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독일·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은행들은 umbrella 구조로 인한 위험가중치 경감이 인정된다고 구두로 전달해 오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추가적 혜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아시아 지역은 거래 경험 자체가 축적되지 않아 규제 취급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
 - 경감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규제당국의 취급과 은행 내부모형 두 가지이며, 동일 국가 내에서도 은행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보증 상품의 활용도는 만기와 용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단기·무역금융 보증이 아시아 은행의 통상적 진입 경로에 해당함.
 - 채권시장에 대한 보증은 현지자본시장 육성이라는 개발 논거가 명확하여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

- 반면 장기 대출에 대한 보증은 직접 대출 대비 마진이 낮아 선호되지 않으므로 실제 사례가 드물며, 검토 빈도도 수년에 1회 수준에 그침.
 - 단기 및 무역금융 보증은 매우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아시아 및 중동 은행이 단기 보증으로 진입하여 구조를 숙달한 뒤 장기 무보증 거래로 이행하는 경로가 반복적으로 관찰됨.
- B론의 가격결정은 시장가격 원칙에 따르며, 실제 금리는 비공개 문서에 규정되어 공개 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함.
- B론의 만기는 참여자가 IDB Invest보다 장기로 갈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A론과 동일하거나 짧게 설정되어야 하며, 만기가 동일한 경우 A론과 동일한 가격이며, 만기가 짧은 경우 가중평균만기(WAL) 차이 1년당 약 20bp 수준의 조정이 적용됨.
 - 문서구조상 A론 계약서와 별도로 3면 분량의 「B Loan Supplement」에 B론 금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복수의 B론이 존재하거나 시차를 두고 추가 B론이 발생할 경우 본계약을 매번 수정하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
- 자금집행형 B론이 부담스러운 신규 투자자를 위해서는 무자금 리스크참여(Unfunded Risk Participation)가 입문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재 범용화 작업이 진행 중임.
- 현재까지 유럽 파트너 1곳과 2건만 실행되었고 해당 파트너에 맞춘 구조여서 범용성이 없으나, 확대를 위해 내·외부 법률자문과 함께 문서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구조상 IDB Invest가 자금을 집행하고 B론 대주는 자금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만 제공하는 형태이며, 리스크가 참여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PDM으로 인정됨.
 - 중남미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를 위한 입문 상품으로 포지셔닝되어 있어, 한국 은행의 1단계 진입 옵션으로 검토할 실익이 있음.
- 한편 ILX Fund는 자금의 일부가 공적 재원임에도 B론 대주로서 적격하며 PDM으로 계상되는데, 한국형 유사 비히클 설계 시 중요한 기준이 됨.
- 적격성의 근거는 자금 출처가 아니라 비히클의 구조 및 시장기반 운용 방식에 있으며, 이에 따라 순수 공공펀드는 B론 대주로서 부적격하고 공공-민간 혼합펀드는 구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민연금 등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비히클을 구상할 경우 민간성 요건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아시아는 IDB Invest의 명확한 지리적 우선순위에 해당하며, 신규 투자자 유치는 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지표인바 한국 기관에 대한 수용성은 높은 상태임.
- 아시아는 유럽·북미와 비교하여 참여 격차가 크면서도 자금 여력은 풍부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 신규 투자자 유치 수는 기관의 공식 목표는 아니나 팀 내부 KPI로 추적되며 매년 증가시켜야 하는 지표로 관리되고 있음.
 - 차주 측에서도 IDB Invest를 신규 금융관계를 형성하는 게이트웨이로 활용하고자 하므로, 파트너 다변화에 대한 수요는 공급 측과 수요 측 양쪽에 존재함.
- 그럼에도 한국 기관의 실제 참여 실적은 제한적
- KEB하나은행(추정)의 참여 조건은 투자등급이면서 외부등급을 보유하고 파나마·칠레·우루과

이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에 소재한 차주로 한정되어 있음.

- 문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가 IDB Invest 포트폴리오에 많지 않다는 점으로, 대부분의 거래는 투자등급 미만이거나 외부등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참여 확대를 제약하는 또 다른 요인은 티켓사이즈의 불일치이며, 이는 소액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 은행에게 구조적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JICA의 일본 연계 요건 운용 방식은 한국이 유사 제도를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한 실증적 교훈을 제공함.

- JICA는 거래에 일본적 요소가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나 이를 필수 요건으로 삼지 않으며, 인정 범위도 차주 수출의 일부가 일본향이거나 일본계 인구가 많은 지역의 사업인 경우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음.

- 반면 유럽 연계나 인도 연계를 엄격히 요구하는 파트너의 경우 딜 소싱이 심각하게 제약되며, 인도 연계 중남미 거래는 수년에 1건 수준에 불과함.

- 따라서 한국 기관이 한국 기업 연계를 조건으로 부과할 경우, 그 요건의 유연성 설계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됨.

3. Capital Markets Division 면담

□ 일 시: 2026.7.20. (월), 14:00 ~ 14:45

□ 장 소: IDB Invest

□ 면담자: Carlos Roberto Arguello Munoz 외 1인

□ 주요 내용

○ Capital Markets Division은 채권 및 구조화금융 상품의 구조화와 인수를 담당하며, 발행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과 역내 모범관행 확산을 전략 목표로 함.

- 취급 범위는 공모와 사모, 현지법과 뉴욕법, 현지통화와 달러를 모두 포괄하며, 최근에는 사모 위주에서 공모 발행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

- 이론상 발행 전액을 인수할 수 있으나 현재의 목표는 타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두 가지 역할이 구분되어 수행됨.

- Lead investor로서는 투자자 유치와 함께 협상·조건·자금용도·법률 협의를 총괄 조율하되,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음.

- Anchor investor로서는 발행액의 최소 50% 인수를 약속함으로써 현지 및 국제 주관사와 협업하는 동시에 발행자에 대한 품질 인증(seal of quality) 기능을 수행함.

- 취급 상품은 채권, 보증, 구조화금융이며, 보증은 신용리스크뿐 아니라 유동성 리스크도 커버하여 일시적 유동성 경색에 따른 디폴트를 방지하고 IDB Invest의 등급을 활용해 발행 등급을 상향시키는 기능을 함.

- B-Bond는 신디케이션 팀 소관이나 시장 수요 창출, 가격산정, 로드쇼는 동 부서와 공동으로 수

행됨.

- 거래는 역내 최대 시장인 멕시코·브라질·콜롬비아·칠레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지통화 조달 역량도 해당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음.
 - 직접 조달이 가능한 현지통화는 브라질 헤알, 칠레 페소, 콜롬비아 페소, 멕시코 페소 4종이며, 파라과이 등 그 외 통화는 스왑을 통한 back-to-back 조달이 필요함.
- 합성증권화(SRT)를 통한 참여 가능성으로 자체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한 합성증권화 거래인 「Scaling for Impact」가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어, 아시아투자자 유치의 유력한 통로가 될 수 있음.
 - 동 거래는 전년 12월 re-tap이 실시되었으며, 현재는 자체 포트폴리오뿐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도 확장되어 파이프라인에 다수의 건이 존재함.
 - 투자자는 대부분 미국·유럽계 보험사이고 그 외 연기금이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아시아 보험사가 참여한 사례는 아직 없어 진입 여지가 존재함.
- 트랜치별 처리 방식과 경제성을 이해하는 것이 참여 검토의 전제가 됨.
 - 에퀴티(first-loss) 트랜치는 skin in the game 확보 목적과 규제상 보유 의무에 따라 IDB Invest 또는 발행은행이 보유함.
 - 메자닌 트랜치는 시장에 매각되며, 예상손실 구간을 이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본 경감을 실현하는 핵심 부분에 해당함.
 - 시니어 트랜치는 AAA 등급에 위험가중치가 낮아 매각 실익이 없으므로 통상 보유하며, 이미 AAA인 자산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셈이 되어 비용이 편익을 상회함.
 - 리스크 정렬 측면에서 원발행자는 규제상 에퀴티 트랜치를 전량 매각할 수 없으며, IDB Invest 역시 클라이언트에게 자산의 일부 보유를 요구함으로써 리스크만 이전한다는 인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 시장 구도상 발행자는 은행이고 투자자는 보험사이며, 보험사의 등급이 시니어 트랜치보다 낮은 경우 현금담보(funded) 제공이 요구되는바 IDB Invest는 AAA이므로 투자 시 담보 제공 의무가 발생함.
- 분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MDB 간 자산 풀링도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임.
 - 다만 IDB Invest 자체도 26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당한 분산도를 이미 보유하고 있음.
 - 단일국가 풀과 다국가 풀, 합성구조와 현금 증권화, 현지통화별 분리 풀링 등 다양한 구조 옵션이 탐색되고 있으며, 현지통화 거래의 통화 혼재가 실무적 난제로 지적됨.
- IDB Invest는 FX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현지통화 참여 시 환리스크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이는 한국 투자자 유치의 실질적 장애로 작용함.
 - 실제 투자자들은 칠레 페소나 멕시코 페소 등에 대한 투자 의향은 보유하고 있으나 환율 급변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우려가 큼.
 - 아울러 증권화 및 구조화금융은 pass-through 구조여서 지급 일정이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헤지하기 어렵고 breakage cost 문제가 발생함.

4. Risk Management Department 면담

□ 일 시: 2026.7.21. (화), 09:30 ~ 10:15

□ 장 소: IDB Invest

□ 면담자: Silvio Amaral Audi 외 1인

□ 주요 내용

- 0% 위험가중치 적용까지의 절차는 3단계로 구성되며, 현재 2단계가 진행 중이고 한국에서의 적용을 위해서는 3단계가 관건임.
 - 1단계인 바젤 기준상 AAA 등급 2개 확보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음.
 - 2단계로 바젤위원회에 서한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연말 이전 목록 등재가 예상됨.
 - 3단계로 EU, 한국 등 개별 관할권의 별도 인정 절차가 남아 있으며 아직 착수되지 않았는바, 바젤 등재 이후에도 각국 규제당국의 인정이 별도로 필요하고 한국도 예외가 아님.
 - 아울러 EMIR 관련 면제를 확보할 경우 현재 불가능한 유럽 카운터파티와의 파생거래가 가능해지므로, IDB Invest는 이를 별도의 관심사로 두고 있음.
- 리스크 관리 체계에 있어 신용전환계수(CCF)는 보증의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PD·LGD 모형상 대출과 금융보증은 동일하게 취급됨.
 -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보증에는 CCF 100%가 적용되는 반면, 이행보증 등 비금융보증에는 보다 낮은 CCF가 적용되며, 모형상 대출과 금융보증의 차이는 자금집행 여부(funded/unfunded) 뿐임.
- 경제적자본 모형은 국가·섹터 분산효과를 인정하고 조성·분산 전략의 효과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모든 한도 관리가 순익스포저 기준으로 이루어짐.
 - 20개국 이상을 커버함에 따른 분산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특정 국가나 섹터에 집중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됨.
 - 조성·분산 전략의 반영 방식은 수단별로 구분되어, 익스포저를 매각한 경우 전액 자본이 경감되고, 보증을 취득한 경우 PD substitution 방식으로 보증인의 신용도가 적용되며, 증권화의 경우 트랜치별 개별 처리 모형이 적용됨.
 - 한도와 집중도는 모두 순익스포저 기준으로 관리되는바, 콜롬비아에 대한 집중도가 높더라도 보험 부보분은 보험사 소재국 리스크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됨.
 - 내부 경제적자본 모형은 신용평가사 방법론보다 리스크 민감도가 높아 조성·분산 이후의 잔여 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함.
 - 한편 보험 등 리스크 이전 수단의 활용 목적은 신용도 개선이 아니라 단일차주 집중도 감축에 있으며, RAROC 개선 효과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함.
- FX 리스크는 극히 보수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파생상품 취급 역량은 구축 단계에 있어 클라이언트 및 투자자 대상 헤지 상품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임.
 - 전사 FX 리스크 한도는 약 3,500만 달러로 매우 작게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전액이 헤지되고 있

음.

- 파생상품은 금리스왑과 통화스왑만을 취급하며 취급 개시 시점도 약 6~7년 전으로 비교적 최근이고, 관련 시스템과 인프라는 현재 아웃소싱 상태로서 글로벌 표준 시스템을 도입하여 내재화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클라이언트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스왑·헤지 상품 제공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며 이사회 승인 요청을 개시한 단계인바, 한국 은행이 현지통화 참여를 희망할 경우 해당 트랜치를 달러로 전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

○ RAROC 및 FCI는 2018년 이후 도입된 지표로서 거래별 최저 기준이 아닌 포트폴리오 목표로 운용되며, 개발효과를 함께 심사하는 거버넌스와 연계되어 있음.

- RAROC는 2018년 도입되어 시스템 반영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019~2020년에 정식 요건으로 자리 잡았으며, 클라이언트 engagement 초기, 승인 단계, 클로징 시점에 각각 산정되고 승인 후 사후관리 단계에도 적용됨.
- 산정에 사용되는 PD·LGD는 경제적자본 및 충당금 산정과 동일한 단일 모형에서 산출됨.
- 거래별 최저 RAROC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연간 클로징 총합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 목표가 적용됨.
- FCI는 경제적부가가치(EVA)를 점수화한 지표로서 미달 시 Operations Committee에 회부되며, 동 위원회는 재무적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개발효과를 함께 심사함.
- 문서 기재 방식은 투자제안서에 RAROC와 FCI를 모두 기재하고 이사회 제안서에는 FCI만 기재하는 형태임.

○ 관련 데이터는 GEM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IDB Invest는 GEMs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기여기관으로서 금년 최초로 GEMs 데이터 기반 PD 모형을 승인하였으며, 자체 부도·회수 실적은 GEMs 평균 및 상업은행 대비 양호함.

- 2016년부터 GEMs에 보고하고 있으며 부도 및 회수의 개념 정의가 GEMs와 정합적이고, 참여기관 약 20개 MDB·DFI 중 기여 규모가 상위 5위권에 해당함.
- 금년 최초로 GEMs 데이터 기반 PD 모형이 승인되었으며 종전에는 S&P 스코어카드를 사용하였고 LGD는 여전히 S&P 스코어카드에 기반하고 있는데, 라틴아메리카 데이터만을 선별하였음에도 글로벌 데이터셋에 필적하는 규모가 확보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함.
- 성과 지표 측면에서 부도율은 GEMs 평균보다 다소 양호하고 회수율은 유사한 수준이며, 두 지표 모두 상업은행 대비 우수함.

○ 다만 공개 수준에는 한계가 있으며, 원데이터 접근은 가능하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 1995년 이래 부도 사례가 약 60건이고 2014년 이후로는 약 30건에 불과하여 국가별·연도별로 분해할 경우 개별 거래가 식별될 수 있으므로, 기업·인프라·금융중개기관 3분류로만 공개되고 있음.
- GEMs 원데이터에 대한 외부 접근은 EIB가 데이터 관리자(steward)로서 관장하며 과거 연구기관에 예외적으로 접근이 허용된 전례가 있으나, 익명화 처리, 전체 데이터셋 열람 없이 쿼리만 허용, NDA 체결, 참여기관 전체의 동의 등 조건이 엄격하여 실현은 가능하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대안으로 GEMs가 매년 발간하는 공개 보고서의 세분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지역별 및 민간·공공별 분해가 제공되므로, 신흥국 전반의 개관 목적으로는 충분함.

- PCT(Preferred Creditor Treatment)는 법적 권리가 아닌 사실상의 관행이며, 그 실질적 가치는 우선변제권이 아니라 현장 네트워크에 기반한 능동적 포트폴리오 관리 역량에 있음.
- PCT는 법률이나 조약에 근거한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de facto) 형성된 관행이고 정부의 법적 의무도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공공부문 포트폴리오에 우선 적용됨.
- 민간부문의 경우 비상업적 근거가 없어 원칙적으로는 상업 대주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나, B론이 MDB umbrella 하에서 IDB Invest 장부에 등록됨에 따라 세제상 혜택, 정부와 체결한 no-objection 협정, 이전성 및 태환성 이벤트 발생 시의 우선순위 대우 확장이라는 실질적 효과가 발생함.

- 다만 PCT라고 통칭되는 것의 실질은 우선변제권이라기보다, 공공·민간 부문을 겸영하는 MDB로서의 현장 존재감에서 비롯되는 능동적 포트폴리오 관리 역량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함.
- IDB 공공부문 조직과 각국 사무소·국가대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문제 징후가 포착되면 정부 및 규제당국과 직접 협의할 수 있음.
- 통상적인 Treasury 방식의 포트폴리오 관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상시 engagement하는 through-the-cycle 관리를 수행하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협상을 개시함.
- 이를 위해 투자운영본부 산하에 포트폴리오관리팀(PMU)을, 리스크관리 부문 내에 Special Assets Team을 각각 운영하고 있음.

- IDB Invest의 투자자 기반은 리스크 성향에 따라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투자자 교육이 상시적 과제로 관리되고 있음.
- 저위험 영역에는 투자등급만을 취급하는 Treasury 채권 투자자가, 중위험 영역에는 무역금융 파트너·B론 참여자·공동투자자가, 고위험 영역에는 IDB Invest보다 위험한 포지션을 인수하는 증권화 후순위 투자자가 각각 분포함.

- 중남미에서는 한 국가의 위기가 인접국으로 전이된 사례가 역사적으로 관찰되지 않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량적 근거는 부재함.
-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등의 위기는 모두 해당국에 국한되었으며, 통화 통제와 경화 부족 상황에서 해당국 내 다수의 부도가 발생하였음에도 역내 전파는 관찰되지 않았음.
- 이는 2012년 유럽에서 포르투갈·스페인·그리스·튀르키예 등 다수국이 동시에 위기를 겪은 사례, 2021~22년 아시아에서 중국 부동산 문제와 함께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이 동시에 문제를 겪은 사례와 대조됨.
- 따라서 아시아 투자자에게는 유럽·아시아 투자와 무상관인 지역에 대한 대륙 간 분산 효과와, 원자재 의존국·농업 의존국·다변화 경제 등이 혼재된 중남미 역내 이질성에 따른 2차 분산 효과가 동시에 발생함.
- 다만 이는 일화적 증거에 그치고 하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은행 설득 논거인 동시에 IDB Invest 측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PPP 사업에서는 IDB 공공부문과 IDB Invest가 역할을 분담하며, 개발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점이 순수 상업 대주 대비 우위로 작용함.
- IDB 공공부문 PPP팀이 규제 및 양허 제도를 설계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IDB Invest가 금융 구조를 설계하는 분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조직 간 인력 이동도 활발함.
- 양허 해지, 시공사 미이행, 스폰서 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업 대주는 단기적 시각에

서 철수하는 반면 IDB Invest는 잔류하여 사업을 완성시키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회수 측면에서도 최선의 투자 판단이 됨.

5. Trade & Supply Finance Division 면담

□ 일 시: 2026.7.21. (화), 14:00 ~ 14:45

□ 장 소: IDB Invest

□ 면담자: Sun Jung Lee

□ 주요 내용

- 무역금융, 공급망금융, 원자재금융을 포괄하며 업무의 70~80% 이상이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거래로 구성됨.
 - 단기 거래는 통상 90일, 120일, 180일 단위로 회전하며, 업무는 금융기관(FI) 리스크 테이킹과 기업(Corporate) 리스크 테이킹 두 축으로 구분됨.
- 금융기관 리스크 테이킹 부문의 최대 프로그램인 TFFP(Trade Finance Facilitation Program)는 유동성 공급과 한도 보완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며, 참여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절감이 핵심 유인으로 작용함.
 - 지원 대상은 중남미·카리브 역내의 모든 은행으로, 소형 은행뿐 아니라 브라질 Itaú와 같은 대형 은행도 포함됨.
 -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기능은 유동성 공급보다 한도(limit) 보완임.
 - MDB 보증을 받을 경우 위험가중자산을 사실상 0으로 처리할 수 있는바, 위험가중자산을 최대한 소모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근 은행들의 공통 과제이며 한국 은행도 동일한 상황에 있음.
- 아울러 TFFP는 개별 거래마다 문서작업을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1회의 마스터 프레임 워크 체결 이후 SWIFT 메시지로 개별 거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참여은행의 거래비용이 매우 낮음.
 - 프레임워크를 한 번 체결하면 이후 개별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서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며, 참여은행은 오픈된 거래의 프라이싱만 검토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하면 됨.
 - 개별 거래의 소요기간은 1~2주에 불과하여 개별 딜이라기보다 프로그램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며, 이에 따라 III장에서 지적된 티켓사이즈 및 거래비용 제약이 상대적으로 완화됨.
- 리스크 측면에서 TFFP는 21년째 운영되어 온 프로그램으로서 그동안 단 한 건의 부도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리스크는 금융기관 단기 거래라고 할 수 있음.
 - 90일 단위로 이자를 수취하므로 회전이 빠르고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며, 마진은 크지 않으나 위험가중자산을 절감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함.

- 하나은행이 TFFP에 신규 진입하여 이미 2건을 클로징하였으며, 그 실질적 동인은 본사가 아니라 파나마 지점이었음.
 - 본사에도 접촉이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사업이 활성화된 계기는 파나마 지점의 강한 사업 의지였으며,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음.
 - 파나마 지점은 중남미에서 실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취급 가능한 상품이 많지 않았고 리스크 어피타이트도 매우 좁게 설정되어 있었음.
 - 만기 1~3년의 직접 대출로는 내부 리스크 심사를 통과할 확률이 낮고 볼륨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100% 보증 상품과 B론 옵션이 제시되자 내부 셋업부터 문서 서명까지 약 2개월 만에 완료되었는데, 이는 통상 대비 매우 빠른 속도임.
 - 2건의 구조 선택이 상이한데, 투자등급 국가인 칠레 건은 자체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아 B론을 선택하여 마진 전액을 수취하였고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국가의 건은 100% 보증을 선택하였음.
- 참여 구조는 100% 보증형과 B론형 두 가지이며, 커버 범위와 수익 배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어 참여은행이 건별로 선택할 수 있음.
- 중남미 단기 무역금융의 프라이싱은 국가 등급에 따라 SOFR+65bp에서 250bp까지 형성되어 있어, 한국 은행의 조달금리를 고려할 때 B론형을 선택할 경우 마진 확보가 가능함.
 - 한국계 은행의 달러 조달금리가 SOFR+50bp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60~65bp 수준의 B론이면 마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함.
 - 반면 100% 보증형은 마진의 70%가 IDB Invest 몫이므로 조달금리를 고려하면 경제성이 성립하지 않는바, 한국 은행에게는 B론형이 실질적 선택지에 해당함.
- 나아가 동일한 조건의 리스크에 대해 중남미의 프라이싱이 아시아의 약 2배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한국 은행 입장에서는 명백한 수익 기회가 존재함.
 - 더블B급 금융기관의 단기 무역금융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중남미의 프라이싱이 아시아의 약 2배 수준이며, 아시아의 경우 캄보디아조차 SOFR+30bp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음.
 - 이러한 격차의 원인은 자금 유입 구조의 차이에 있는데, 아시아에는 중국·일본·중동·미국·유럽 자금이 모두 유입되어 시장이 포화된 반면 중남미에는 북미와 유럽 자금 정도만 유입되고 중동 자금은 부재하며 중국 자금도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음.
 - 동일한 격차는 장기금융에서도 확인되며, 선박금융 사례가 이를 명확히 보여줌.
 - ECA가 95~100%를 커버하므로 차주의 신용등급이 프라이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시장 형성 가격이 크게 다른바, 이는 차주 신용도로 설명되지 않는 시장 불균형에 해당함.
 - 다만 시장 프라이싱은 거의 일 단위로 변동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미 사업 기반과 예산·KPI를 보유한 기관이라면 수익 측면에서 중남미가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임.
- IDB Invest와 한국 ECA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목적과 요건이 근본적으로 다른 별개의 영역에 속하며, 실제 하나은행의 TFFP 거래에는 한국 수출입 요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IDB Invest의 파트너 은행은 전 세계 수백 개에 달하며, KDB와 K-EXIM도 그중 하나로써 이미 참여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하나은행의 TFFP 거래는 칠레 은행 대출, 파라과이 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한국 수출입 요소가

전혀 없는 순수한 금융기관 대상 사업이며, K-SURE와 K-EXIM은 수출 연계가 필수여서 이러한 단기 프로그램을 취급하지 않음.

- 다만 양자가 접점을 갖는 영역도 존재하는데, 파나마 메트로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삼성전자·LG전자가 카리브에 수출할 때 현지 영세 수입상 및 유통업자에 대한 팩토링을 지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아울러 TFFP는 로컬 은행에 무조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관련 증빙이 확인되는 자산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로, 개발효과 경로가 명확히 설계되어 있음.

○ 한국 콘텐츠와의 연계는 양방향으로 가능하며, 특히 이행보증 구조가 한국의 이익과 가장 빠르게 연결되는 경로임.

- IDB Invest가 오리지네이션한 거래를 한국 금융기관에 소개하는 방향과, 한국 금융기관이 거래를 IDB Invest에 제안하는 방향이 모두 가능하며 후자는 JP Morgan 등 미국계 은행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방식임.
-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및 입찰보증(bid bond) 구조가 특히 유효한데, 중남미 프로젝트는 최종 발급기관이 로컬 은행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 Preferred Creditor Status는 차주가 순수 사기업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외환통제 상황에서의 예외적 송금 허용과 원천징수세 면제라는 두 가지 구체적 효과를 발생시킴.

- 작동 메커니즘은 아르헨티나의 외환통제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데, 사기업 차주가 달러 또는 유로로 차입한 상태에서 정부가 외환통제를 시행하면 차주는 자금이 있어도 상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이때 IDB Invest는 동 지위를 근거로 예외적으로 자금 이동을 허가받으며, B론 참여자 역시 IDB Invest가 lender of record라는 이유로 동일한 효과를 향유함.
- 아울러 원천징수세 면제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법적 근거는 IDB 및 IDB Invest의 설립정관(Articles of Agreement)에 IDB 관련 활동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26개 차입국의 국회가 동 정관을 비준함으로써 해당국의 국내법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에 있음.
- 한편 IDB Invest의 프라이싱은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시장가격을 따라야 하며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수 없으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all-in 기준으로는 실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본 메가뱅크는 이미 상당한 참여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의 후속기관들도 현재 진입하고 있어, 한국 시중은행은 아시아 내에서도 후발 위치에 있음.

- MUFG, SMBC, 미즈호 등 일본 3대 메가뱅크는 과거 활발히 참여하였다가 달러 조달금리 문제로 중단하였으나 최근 재개를 시도하고 있음.
- 현재 아시아에서는 DBS(싱가포르), 대만 은행들, 인도 은행들, 일본의 노린추킨 등 메가뱅크 다음 티어의 기관들이 신규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임.
- 반면 한국 금융기관은 베트남 등 동남아 진출은 활발하나 중남미 진출은 거의 없는 상태로, 이는 담과 달걀의 문제에 해당하여 금융기관과 기업이 함께 진출할 필요가 있음.

6. Blended Finance Division 면담

□ 일 시: 2026.7.21. (화), 15:00 ~ 15:45

□ 장 소: IDB Invest

□ 면담자: Romero Aritzemendi Felipe de Jesus, 황기정

□ 주요 내용

- Blended Finance Division에서는 양자 및 다자 공여국 자금을 주력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 자금도 존재하나 기술협력 용도에 한정되어 있어 블렌디드 파이낸스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음.
 - 양자 재원으로는 캐나다, 핀란드 등이 있고, 다자 재원으로는 녹색기후기금(GCF)과 기후투자기금(CIF)이 활용되고 있음.
 - 전년부터는 타 MDB에서 일반적인 방식인 자체 자본 운용도 개시하여 250만 달러를 운용하고 있음.
 - 한국 자금이 기술협력(TC) 용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향후 한국 공여기관과의 협력 구조를 설계할 때 출발점이 되는 사실관계임.
- 취급 상품은 투자자본과 그랜트로 구분되며, MDB 공동 원칙에 따라 시장왜곡 회피와 양허성의 한시성이 기본 원칙으로 적용됨.
 - 투자자본에는 대출, 보증, 지분, 성과기반보조금(performance-based grants)이 포함되고, 그랜트에는 기술지원, 사업준비(upstream), 타당성조사, 교육이 포함됨.
 - 양허의 형태는 가격, 장기 만기 등의 조건, 후순위 및 메자닌 트랜치 제공, 폭포수 구조 내에서의 조건, 유동성 공급 등으로 다양하게 구현됨.
 - 필요하지 않은 곳에 양허를 제공하면 시장을 교란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여야 하며, 양허성은 한시적이어야 하여 금일 1달러를 지원하였다면 익일에는 50센트로 축소해 나가야 함.
 - 아울러 공여국 자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을 부담함.
- 현재 13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여 250억 달러를 레버리지함으로써 약 20~25배의 동원 배수를 실현하고 있으며, 사업의 90% 이상이 기후 목적에 해당함.
 - 승인 건수는 131건이고 포트폴리오상 활성 건수는 101건임.
 - 90% 이상이 적응·완화·회복력 등 기후 목적에 해당하고 사회적 포용 관련 사업은 소액에 그치며, 사업 수명 기간 중 1억 3,600만 톤의 CO2e 회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총 금융에서 블렌디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5~10% 수준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1% 미만에서 30%까지 편차가 큼.
 - 블렌디드 없이는 사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와, 성립은 하되 임팩트 강화나 자금 공백 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음.
- 블렌디드 파이낸스 자금은 IDB Invest 자기계정과 별도로 계상되며, OECD 방법론과 MDB 공동 방법론이 병존하는 가운데 first-loss 자본과 보증의 동원 배수가 가장 크게 계상됨.
 - IDB Invest가 자기계정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그 위에 별도의 블렌디드 계층이 추가되는 경우, 후자는 별도 항목으로 계상됨.
 - OECD 방법론과 MDB 공동 방법론은 계상 방식이 상이하므로 이중계상을 회피할 필요가 있음.

- OECD 기준으로는 first-loss 자본과 보증의 동원 배수가 가장 크게 계상되는바, 이는 공여국의 실적 목표 달성에 가장 유리한 수단에 해당하여 한국 공여기관을 설득하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MDB나 DFI의 통상적인 금융은 양허성이 없어 블렌디드로 계상되지 않으며, 양허성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여야 인정됨.
- 블렌디드 파이낸스가 후순위 또는 보증 형태로 투입되면 기초자산의 PD와 LGD가 실제로 개선되므로 참여 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으나, IDB Invest가 그 효과를 대신 산정해 주지는 않음.
- 후순위 또는 보증 형태의 투입은 기초자산의 신용도를 실질적으로 개선(credit enhancement)하므로, 동일 자산에 대출하는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산정 시 그 효과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다만 참여 은행의 리스크 평가와 규제자본 산정은 은행 자체 및 각국 규제당국의 소관이며, IDB Invest가 이를 대신 계산하지는 않음.
- 다만 IDB Invest 현장상 특정 공여국의 자국 은행에 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한국 자금과 한국 은행 참여를 명시적으로 연계하는 구조 설계에는 제약이 따름.
- 일부 공여국이 자국 기관에 대한 우대를 희망한다는 점은 인지되고 있으나 현장이 이를 제약하고 있음.
- 손실 발생 시의 책임은 개인 담당자가 아닌 기관이 부담하며, 자기계정과 블렌디드 자금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조직 내 방화벽을 통해 각각의 수탁자 책임을 이행함.
- 상각 결정은 지정된 거버넌스 기구가 수행하며, 자금은 상환성(reimbursable)과 비상환성(non-reimbursable)으로 구분되는데 양허성 자본이 희소하여 비상환성 자금이 통상 더 소규모임.
 - 조직은 3단계로 구성되어, Origination이 클라이언트 협의와 구조 설계 및 투자 실행을, 포트폴리오관리팀(PMU)이 집행 후 자산 관리를, 리스크팀 내 Special Assets Team이 부실·파산·미지급 발생 시 법적 대응과 워크아웃을 각각 담당함.
 - 블렌디드 자금이 IDB Invest 자기계정보다 후순위에 위치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Special Assets Team 내부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각각의 수탁자 책임을 이행함.
 - 다만 사전 요건으로, 블렌디드를 통해 고위험 트랜치를 인수하더라도 기초사업 자체는 재무적으로 지속가능하여야 하며 실패가 예상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음.